

산사음악회, 지역축제,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개폐회식 공연, 근대불교미술 조형 등 올해 불교문화계에는 어느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특히 2002년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였던 만큼,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전시회와 음악, 무용 공연이 펼쳐졌다.

'산사음악회' ... '깨달음展' 등 문화행사 여느해보다 풍성



올해 불교문화계는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 개폐회 외국인들에게 불교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풍성하게 열렸다. 사진은 신촌 불원사 영산재 보존회 스님들이 '영산재' 중 식당작업을 펼쳐보고 있다.

이중 산사음악회는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북한산 심곡암, 해남 미항사, 진천 보림사, 지리산 불락사, 봉화 청량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성황리에 열려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를 굳혔다. 하지만 일부 사찰은 출연료와 무대 설치비 등에 소요되는 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했다. 따라서 지역민을 위한 소규모 저예산 산사음악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찰주도 지역축제 늘어 눈길

2002 불교문화계 결산

주요 사찰서 산사음악회...대표적 행사로
근현대불교미술전 '아름다움과...' 큰의미
영화 '동승' 30여 국제영화제 초청 신기록

창단 4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기념음악회를 연 LMB싱어즈와 교계에 처음으로 클래식 음악을 통해 전문 실내악단으로 불음포교를 활발히 하고 있는 '니르바나'의 꾸준한 활동도 높이 살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지역문화의 해를 계기로 활성화 되기 시작한 지역문화축제는 올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화순 운주사 대축제, 아산 인취사 백련사, 하동 쌍계사 차 축제, 백양사 단풍축제 등 사찰 주도의 지역축제가 늘어나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보고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다 끝나는 행사가 주류를 이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졌다.

화순 운주사 대축제, 아산 인취사 백련사, 하동 쌍계사 차 축제, 백양사 단풍축제 등 사찰 주도의 지역축제가 늘어나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보고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관람객들이 단순한 구경꾼에 머물다 끝나는 행사가 주류를 이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남겨졌다.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대부분이었던 불교미술계에 20세기 유명작가들의 본격 창작품을 한 군데 모아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이중 근현대 최고의 불상으로 꼽히는 김복진의 '장해사 관음보살입상', 정종여의 '진주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 근대 대표적 유희가 오지호의 '공주 무등산 아미타 후불탱화' 등은 미술계에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한국의 대표적 미술 전시회로 이번엔 19회를 맞은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은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방향 제시할 수 있는 창의성 풍부한 다양한 작품의 출품이 예년에 비해 적어 일반 미술계의 역망있는 작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년 3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동승'의 잇달은 해외 영화제 초청은 사찰이 한국의 대표적인 영상소재로 세계인들에게 각인되는 데 한 몫을 단단히 한 쾌거였다. 빼어난 영상미가 돋보이는 영화 '동승'은 6월 상하이 국제영화제 최우수 각본상 수상에 비롯해 하와이 국제영화제, 에테라리, 티부튼, 파리, 트레블링 등 30여개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ia.com

단청·불화제작 과정도 함께...

14~20일 대전서 한국전통문화 미술인전

행문회제 14호 단청장 시연 보유자 조정우씨를 비롯해 전수자 10여명이 여러개의 모형 건물들을 만들어 단청을 시연하고 5폭의 불화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이런 전시 작품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조정우씨의 '심우도 병풍'과 '수월관음도'다. 특히 '수월관음도'는 선재동자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보타락가산을 찾아가 만난 관세음보살을 배경으로 달을 넣어 그렸다. 이 그림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묘사되는 수월관음과 달리 현대적인 색채 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준다.

수묵화가 아닌 진채를 사용해 표현한 김경암씨의 '달마도'도 재미 있다. 수묵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넘어 화사한 진채의 맛이 잘 녹아있다. 이외에도 김성희씨의 '영산회상도', 문종호씨의 '사명대사 영정', 박정환씨의 '일주문 모형', 배현근씨의 '포대화상', 이태만씨의 '석조 비로사나불', 조병현씨의 '목조 나한상' 등도 전시된다.

전연호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장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모습.

찬불가 합창제 '새벽을 여는소리'

불교소년소녀합창단 13일 세종문화회관서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이 13일 오후 7시30분 세종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새벽을 여는 소리'란 주제로 '제9회 정기 연주회'를 마련한다. 찬불가 CD 출판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공연은 1부의 새벽 예불의식 공연과 2부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특수 스님의 도량식 독경으로 막을 올리는 1부는 하유 스님의 법고연주, 불교TV 합창단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의 예불문, 발원문, 반야심경 합창 등의 손으로 펼쳐진다. 특히 1부 공연은 인적 없는 산사의 새벽을 표현하기 위해 법고, 운관, 범종, 목어 등 사물을 무대에 등장시켰다.

전국불교만화전 작품공모

내년 1월10일 단편·만평 등 마감

영남불교대 불교만화연구소 소장 김선아는 '제2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을 개최한다. 단편, 네컷만화, 일러스트, 만평, 캐릭터 등 불교를 소재로 한 모든 장르의 만화면 출품이 가능하다. 장르와 편수, 사이즈는 제한이 없으며 특히 컴퓨터로 제작한 작품은 프린트물과 디스켓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 마감은 내년 1월 10일, 시상 내역을 살펴보면 조계종 총무원장상(연꽃대상)을 비롯해 조계종 포교위원장상, 영남불교대

학장상, 대한불교진흥원장상 등 총 1천만원 상당의 푸짐한 상금과 상품이 수여된다. 수상 작품은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불교만화 이야기>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내년 1월 26일 오전 11시 영남불교대 관음사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김선아 소장은 "불교만화의 활성화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okbuddha.com, 053474-0344

회화·조각 등 작가 20명 75점 출품

이런 전시 작품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조정우씨의 '심우도 병풍'과 '수월관음도'다. 특히 '수월관음도'는 선재동자가 진리를 구하기 위해 보타락가산을 찾아가 만난 관세음보살을 배경으로 달을 넣어 그렸다. 이 그림은 고려불화에서 많이 묘사되는 수월관음과 달리 현대적인 색채 기법을 접목했기 때문에 색다른 느낌을 준다.

수묵화가 아닌 진채를 사용해 표현한 김경암씨의 '달마도'도 재미 있다. 수묵에서 느껴지는 단조로움을 넘어 화사한 진채의 맛이 잘 녹아있다. 이외에도 김성희씨의 '영산회상도', 문종호씨의 '사명대사 영정', 박정환씨의 '일주문 모형', 배현근씨의 '포대화상', 이태만씨의 '석조 비로사나불', 조병현씨의 '목조 나한상' 등도 전시된다.

전연호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장

mahamall.co.kr

"보살님! 자녀의 성적 향상을 원하십니까?"

"생명의 돌, 희담석에는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수험생이나 스님 등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최상의 상태는 순간의 집중력과 그것을 얼마나 장시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희담석은 신체를 정화시키는 강력한 에너지 파장으로 머리를 맑게 하여 집중력을 높이고, 몸을 편안하게 이끌며 순간순간 회복력을 높여 주어 장시간의 공부도 가능하게 합니다. 아래의 체질 사례들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희담석 방식 체질사례)

어고 1학년인 내 딸은 평소 책상에 앉아 밤 12시 남기기를 즐겨했는데요. 그러나 졸기 일쑤였다. 또한 아침에는 늘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했다. 지난 추석 무렵에 '희담석 방식'을 알게 되어 딸 이외의 외제에 알려 놓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중간고사를 준비하는데 딸 아이는 새벽 3시~4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졸기는커녕 집중을 잘 하는 듯 보였고 더군다나 밤 늦도록 공부했음에도 아침에 힘들지 않고 잘 일어났다. 평소 자기는 32명중 27등 정도였던 딸아이의 성적은 '희담석 방식'을 사용한 후 10등으로 올라갔고, 일기 과목을 어려워 했는데 일기 과목의 성적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편이었다. 나와 딸애는 물론 선생님과 친구들까지도 매우 놀라워했다. (김영희 41세, 우월생 어머니, 부친 중풍)

나는 힘이 없어서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온전치 시골에 '희담석 방식'을 알고부터는 장거리 운동을 해도 힘이 들지 않았다. 단지 형식으로 사용한 것인데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 희담석의 효능은 참으로 탁월한 것 같다. (박문수 51세, 공무원)

희담석을 하거나 혹은 경서를 보기 위해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았으나 고질적인 허리통증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 무렵에 '희담석 방식'을 소개받아 사용했는데, 그 놀라운 효능을 곧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오랫동안 책상을 해도 편안하고, 장시간 책을 보아도 뒀은 증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좋다. (정안수 51세, 직장인)

과음을 한 날, 새벽 '희담석 방식'을 돌려 놓고 자면 다음날 숙취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 과음한 다음날 해리 뒤 동맥이 시큰거리기에 30분 정도 '희담석 방식'을 열리게 하면 현무에 대고 고집시킴이나 시큰거리고 빠른편의 통증이 사라졌다. 이병수 (남/35세, 서울 회사원)

마하몰 제품문의 (02)732-1520

제조권 (주)자원넷 JAWONET CO., LTD.

모 제 3회 집

국제 전문 자격시 취득 안내

"부처님의 극락 불탑의 나라 황금의 사원미얀마"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한국, 공용 국제자격증

국제 포교를 위해 증설한 미얀마 국제 아우미까지 성도 대학원에서 지식인들의 동용문이 되고자 다음 해당 학과 학생을 모집합니다.

국제전문자격취득과정

- 1 전통 침술 국제 자격증반
- 2 스포츠 지압 국제 자격증반
- 3 비만 클리닉 백집 자격증반
- 4 명예 열악박사 학위반

지원 자격

- 1 남녀 만 27세 이상 60세 미만
- 2 연세 침술 또는 경력 1년 이상인자
- 3 학력 제한 없음
- 4 지원서, 등본 1통, 사진 6매, 이력서

(대학원 확장과 한국 본교 증설로 이번기회 전원 무시험 통과 자격 취득)

◆ 접수 및 문의: 031)867-4131 / 팩스 031)867-4134 / 011)214-4135 / 018)370-4133

◆ 홈페이지 접수: www.sukamony.or.kr

◆ 지원서 접수 마감: 양력 12월 15일

◆ 출발일: 양력 26일 ~ 30일 (4박5일 - 일정에 관광포함)